

『춘향전』 刊行本の 系統 및 書誌의 特徵에 관한 研究*

A Study on Systems and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rinted Books of *Chunhyangjeon*

李玉成 (Lee, Ock-Seong)**

姜順愛 (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序 論 | 4. 活字本 『춘향전』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 |
| 2. 『춘향전』의 形成과 發達 | 5. 結 論 |
| 3. 木板本 『춘향전』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 | <참고문헌> |

< 초 록 >

『춘향전』은 이도령과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탐관오리의懲治를 다룬 내용으로,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어온 積層文學이자 조선 후기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춘향전』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5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木板本과 活字本의 세분화 된 계통을 수립하였다. 또한 木板本은 字體와 刊行地, 活字本은 字體, 發行所 및 發行者, 채색 표지, 삽화 등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書誌的 性격을 밝혀 보았다.

현존하는 『춘향전』 寫本과 刊行本은 총 143종 286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에서 筆寫記나 刊記 또는 藏書記가 확인된 것은 90종 183책 즉, 寫本 42종 54책, 木板本 19종 47책, 活字本 29종 82책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춘향전』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5기로 나누어 시기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제4기(1910~1920년대)가 『춘향전』 제작과 유통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木板本 『춘향전』은 모두 한글본으로서 刊行 지역에 따라 京板本 7종 17책, 完板本 9종 26책, 安城板本 3종 4책 등으로 나타났다. 活字本 『춘향전』은 형태에 따라 新鉛活字本 28종 79책, 石版本 1종 3책으로 나타났다. 新鉛活字本은 표기 문자에 따라 國漢文混用本 4종 11책, 한글本 19종 37책, 漢文本 5종 31책으로 나뉘고, 石版本 1종은 演戲本 형식의 漢文本이다.

『춘향전』에 대한 서지적 연구는 조선 후기 고전소설의 筆寫 및 刊行과 流通, 讀者層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要語: 춘향전, 남원고사, 옥중화, 열녀춘향수절가, 방각본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석우중학교 국어 교사(parani1123@hanmail.net) (제1저자)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공동저자)

접수일: 2012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Chunhyangjeon has been handed down for ages being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s and contents in the socio-economical chang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esult showed that the total 143 types and 286 books, like 88 types of 110 manuscript books, 25 types of 86 block books, 30 types of 90 printed books were identified. Among these, the bibliographic list of the total 90 types and 183 books, like 42 types and 54 manuscript books, 19 types of 47 block books, 29 types and 82 printed books was made, and its status was analyzed by time.

Based on the abov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Chunhyangjeon* was divided into the five stages and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were explained. Especially, the period from 1880's to 1910's when rental books and block books of *Chunhyangjeon* were activated and new lead printed books were settled could be the heyday of manufacture and circulation of *Chunhyangjeon*.

The manuscript of *Chunhyangjeon* was divided into 28 types and 28 books in the Korean version, 5 types and 16 books in the Chinese one, and 9 types and 9 books in the mixed Korean and Chinese ones by their marking way. The block book of *Chunhyangjeon* was divided into 7 types and 17 books of Seoul version, 9 types and 26 books of Jeonju version, and 3 types and 4 books of Anseong version according to their published place. The printed book of *Chunhyangjeon* was divided into 19 types and 37 books in the Korean version, 5 types and 31 books in the Chinese one, and 4 types and 11 books in the mixed Korean and Chinese ones by their marking way.

It is certain that they will be contribute to the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transcription and publication, circulation and a class of readers of classical nove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Chunhyangjeon*, *Namwonkosa*, *Okjungwha*,
Yeollyeo Chunhyang sujeol ga, woodblock print(banggakbon)

1. 序 論

『춘향전』¹⁾은 이도령과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탐관오리의 懲治를 다룬 내용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積層文學이자 판소리계 소설이다.

『춘향전』은 英祖 29년(1753) 晚華齋 柳振漢이 한시 200句로 된 『春香歌』를 지은 후 寫本과 刊行本으로 제작되면서 내용과 형식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꾸준한 인기를 얻어 왔다. 현존하는 寫本과 刊行本の 수가 143종 286책²⁾이라는 점에서, 『춘향전』에 대한 書誌的 연구는 18~20세기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筆寫 및 刊行과 유통, 독자층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異本의 분석과 비교, 작품론, 발생 및 계통, 판소리 唱本과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특징, 근원 설화와 삽입가요 등에 집중되었다.³⁾ 寫本과 刊行本の 전체 현황조차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寫本 중심의 연구로 인해 刊行本の 書誌的 특징과 文獻的 가치 규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남원고사, 별춘향전, 옥중화’ 세계통으로 나누는 방법에 固着되어 底本이 모호할 만큼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개작된 자료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新鉛活字本은 ‘딱지본’이라 불리며 그 文獻的 가치가 平價切下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춘향전』 실물 자료와 典籍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筆寫記·刊記·藏書記가 확인된 90종 183책의 형태·내용·표기문자·시기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춘향전』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5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 중에서 木板本 19종 47책과 活字本 29종 82책의 계통을 세분화하였

1) 寫本과 刊行本을 통칭할 때는 『춘향전』을 사용하고, 각각의 異本을 지칭할 때는 「」 안에 內題 또는 卷首題를 넣어 표시하였다.

2) 寫本은 88종 110책, 木板本은 25종 86책, 活字本은 30종 90책이다. 이 중에서 筆寫記가 없는 寫本 46종 56책, 刊記가 없는 木板本 6종 39책과 活字本 1종 8책, 총 53종 103책과 唱本, 주석서, 1950년대 이후 刊行本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김동욱·김태준·설성경 공저, 『춘향전비교연구』 (서울: 삼영사, 1979).

설성경, 『춘향전의 형성과 계통』 (서울: 정음사, 1986).

김석배, “춘향전 이본의 생성과 변모 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 대학원, 1992).

류준경, “漢文本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적 위상,”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2003).

전상욱, “坊刻本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2006).

다. 또한 木板本은 字體·刊行地, 活字本은 字體·發行所 및 發行者·채색표지·삽화 등을 분석하여 각각의 書誌의 특징과 文獻的 가치를 밝혔다.

2. 『춘향전』의 形成과 發達

2.1 『춘향전』 寫本과 刊行本 현황

『춘향전』 寫本과 刊行本 90종 183책을 형태·표기문자·筆寫 및 刊行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춘향전』 분석 대상의 형태별·표기문자별·시기별 현황

단위: 종/책

형태	시기 (年代)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계
		1750	1760-1830	1840	1850	1860	1870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寫本	한글				1/1		1/1	2/2	10/10	11/11	1/1	1/1	1/1	28/28	
	漢文	1/2		1/6	1/7	1/1	1/1							5/17	
	國漢							2/2		6/6	1/1			9/9	
	소계	1/2		1/6	1/7	2/2	2/2	4/4	10/10	17/17	2/2	1/1	1/1	42/54	
木板本	京板						2/2	2/2	1/1	1/5	1/7			7/17	
	完板								3/3	4/14		1/1	1/8	9/26	
	安城板								1/1	2/3				3/4	
	소계						2/2	2/2	5/5	7/22	1/7	1/1	1/8	19/47	
活字本	新國漢									2/16	1/8	1/3	1/4	5/31	
	新韓글									10/20	7/15	2/2		19/37	
	新漢文									2/5	2/6			4/11	
	新계									14/41	10/29	3/5	1/4	28/79	
	石版漢文								1/3					1/3	
	石版계								1/3					1/3	
소계								1/3	14/41	10/29	3/5	1/4	29/82		
합계	1/2		1/6	1/7	2/2		4/4	6/6	16/18	38/80	13/38	5/7	3/13	90/183	

첫째, 형태별로는 寫本 42종 54책, 木板本 19종 47책, 活字本 29종 82책으로

나타났다. 寫本의 수가 많은 것은 筆寫 과정에서 다양하게 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新鉛活字本의 제작과 유통이 가장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표기문자별로는 한글본 66종 112책, 漢文本 10종 31책, 國漢文混用本 14종 40책으로 나타났다. 寫本은 한글본 28종 28책, 國漢文混用本 9종 9책, 漢文本 5종 17책이고, 木板本은 19종 47책 모두 한글본이다. 活字本은 國漢文混用本 5종 31책, 한글본 19종 37책, 漢文本 5종 14책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로는 제1기 1750~1830년대는 寫本 1종 2책, 제2기 1840~1870년대는 寫本 4종 15책이 전해지고 있다. 제3기 1880~1900년대는 寫本 16종 16책, 木板本 9종 9책, 活字本 1종 3책, 모두 26종 28책이 전해지고 있다. 제4기 1910~1920년대는 寫本 19종 19책, 木板本 8종 29책, 活字本 24종 70책, 모두 51종 118책이 전해지고 있다. 제5기 1930~1940년대는 寫本 2종 2책, 木板本 2종 9책, 活字本 4종 9책, 모두 8종 20책이 전해지고 있다.

2.2 『춘향전』 筆寫 및 刊行의 시기별 變貌 樣相

제1기(1750~1830년대)는 판소리 사설이 형성되고 寫本이 등장한 시기로서, 한문으로 쓰여진 寫本 1종 2책이 전해지고 있다. 판소리 사설 『춘향가』는 구전설화가 광대들에 의해唱으로 불리면서 성립된 것으로, 英祖 30년(1754) 晚華齋 柳振漢이 지은 한시 『春香歌』를 고려할 때, 늦어도 1750년대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설은 ‘祭儀로서의 춘향극, 祭儀的 演唱으로서의 춘향소리극, 판노름 演唱으로서의 춘향소리’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⁴⁾ 춘향의 님을 기리는 祭儀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설화와 演戲的 성격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柳振漢의 漢文本 『春香歌』⁵⁾는 당시 양반이나 識者層이 판소리 사설이든 소설이든 『춘향

4) 설성경, 『한국고전소설의 본질』 (서울: 국학자료원, 1991), 16-35.

5) 『晚華集』 卷1 行錄을 보면, 『春香歌』는 英祖 29년(1753)에 柳振漢이 호남 지역의 山川文物을 보고 난 후 英祖 30년(1754) 봄에 집으로 돌아와 지은 것이다(先考癸酉(1753)春南遊湖南 歷觀 其山川文物 其翌年(1754)春還家 作春香歌一篇). 현재 『晚華集』 卷2 <歌詞>에 수록되어 있으며 1종 2책이 전해지고 있다. 내용은 七言漢詩 200句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도령과 춘향의 만남·이별·고난·재회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진』의 내용을 알고 즐겼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2기(1840~1870년대)는 한문으로 된 寫本이 증가하고 한글본이 등장한 시기로서, 모두 4종 15책이 전해지고 있다. 판소리 공연의 주체인 광대들이 富豪나 양반층을 기반으로 활동⁶⁾하면서, 판소리 사설 『춘향가』를 즐겼던 양반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춘향전』을 제작하였다. 漢文으로 쓰여진 詩歌本 『廣寒樓樂府』⁷⁾와 演戲本 『廣寒樓記』⁸⁾, 小說本 『春香新說』⁹⁾ 등이 대표적인 寫本이다. 이와 달리 민중들은 판소리 사설 『춘향가』의 내용을 기록하였고, 전문 唱者들은 기존의 사설을 정리·개작하여 자기 나름대로 『춘향가』를 만들었다. 高宗年間(1863~1907)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신재효의 『申五衛將本集』(규장각 소장)에 실린 『童唱 春香歌』와 『男唱 春香歌』가 대표적인 예이다. 貫冊家들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5권 5책의 『남원고스』¹⁰⁾와 같이 분권화·상품화 된 寫本을 제작하여 유통시켰다. 주된 독자층은 학식 있는 서민이나 중인, 부유한 여성들이었으며, 밖을 나갈 수 없는 부녀자들은 방물장수를 통해 貫冊 『춘향전』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3기(1880~1900년대)는 寫本이 증가하고 木板本이 새롭게 등장한 시기로서,

(김석배, “晚華本 『春香歌』,” 『판소리 研究』 제3집(1996. 6), 327-350.)

- 6) 김석배(1992), 212.
- 7) 『廣寒樓樂府』(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는 哲宗 1년(1852)에 壺山居士 尹達善이 지은 것으로, 七言絶句 형식의 漢譯詩 108疊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102疊은 작중인물의 唱인데, 李生唱이 51疊, 香娘唱이 35疊으로 가장 많다. 漢譯詩 첫머리에는 要畧, 轉語, 李生唱, 香娘唱, 總論, 結局 등을 표시하여 각각의 기능을 밝혀 놓았고, 이별 대목에는 ‘弄, 別, 別意, 別曲, 思, 夢’ 등의 評語를 붙여 놓았다.
- 8) 『廣寒樓記』(존경각 소장)는 憲宗 11년(1845) 水山이 지은 것으로 ‘編輯者 雲林樵客과 評批者인 小广主人의 序文, 廣寒樓記讀法, 水山이 지은 본문, 詩’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8회로 구성된 回章體 형식이고, 각 회의 앞뒤에는 論評과 解說이 있다. 본문에는 挾注를 붙여서 字句 풀이와 내용 보완 및 비평을 하였다.
- 9) 『春香新說』(여승구 소장)은 관직을 그만두고 落鄕한 선비가 高宗 1년(1864)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許鎬九·姜在哲, 『譯注』春香新說·懸吐漢文春香傳』(서울: 以會文化社, 1998), 21.)
- 10) 『남원고스』(동양어학교 소장)는 누동(樓洞)에서 筆寫된 5권 1책(216장)의 貫冊本으로 表題는 『南原古詞 南원고스』이다. 卷1·2는 高宗 1년(1864) 6월, 卷3은 같은 해 7월, 卷4·5는 高宗 6년(1869) 9월에 筆寫되었다. 高宗 1년에 처음 쓰여져 貫冊으로 유통되다가 卷3·4·5가 훼손·분실되어 같은 해 7월과 高宗 6년에 각각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金東旭·權寧徹 共編, 『春香傳寫本選集 1』(서울: 明知大學出版部, 1977), 45-189.)

모두 26종 28책이 전해지고 있다. 貫冊과 坊刻本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 상품으로 정착되면서, 『춘향전』의 제작과 유통이 이전보다 확대된 시기이다.

寫本 『춘향전』은 「남원고스」와 木板本 『춘향전』을 底本으로 하여 傳寫 또는 改作한 것으로, 東洋文庫와 阿川文庫에 소장된 한글본 「춘향전」¹¹⁾은 모두 貫冊本이다. 또한 한문소설 「益夫傳」¹²⁾을 보면, 상층 문화에 알맞도록 『춘향전』을 개작하고자 했던 양반층의 의도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木板本 『춘향전』은 서울, 전주, 안성에서 營利를 목적으로 刊行된 坊刻本이다. 서울 지역 방각업자들은 寫本 「남원고스」와 東洋文庫 소장 「춘향전」을 底本으로 하여 京板 35장본과 30장본을 刊行하였고, 점차 23장본과 17장본 형태로 내용을 축약하여 장수를 줄여나갔다.¹³⁾ 독자들이 선호하는 사랑과 이별 대목, 어사 출도 대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주 지역 방각업자들은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 童唱 「春香歌」와 男唱 「春香歌」를 축약·개작하여 完板 26장본과 29장본을 刊行하였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 묘사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판소리 사설을 추가하면서, 33장본과 84장본 같이 점차 확대된 형태로 刊行되었다.¹⁴⁾ 京板이나 貫冊처럼 골계적이지 않고, 춘향의 이미지가 정숙하고 고상한 점은 계속 유지되었다. 안성 지역 방각업자들은 京板 23장본을 축약·개작하여 20장본으로 刊行하였으며, 안성은 물론 서울 궁내동과 미동에서도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11) 「춘향전」(東洋文庫 소장)은 光武 4년(1900)~1911년에 향목동(香木洞)에서 筆寫된 10권 10책(287장)의 貫冊本이다. 卷8은 光武 4년(1900), 卷6은 光武 8년(1904), 卷1·2·3·4는 隆熙 3년(1909), 卷5·7·9·10은 1911년에 筆寫되었다. 光武 4년에 쓰여져 貫冊으로 유통되다가 일부 훼손·분실된 것을 光武 8년, 隆熙 3년, 1911년에 각각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경문사 편집부, 『春香傳』(서울: 경문사, 1977), 23-301.) 阿川文庫 소장 「춘향전」은 隆熙 1년(1907)에 간동(諫洞)에서 筆寫된 9권 2책(238장)의 貫冊本이다. 上冊은 卷1~5(131장)이고 下冊은 卷6~9(107장)이다. 卷1~6은 東洋文庫 소장 「춘향전」과 동일하고, 卷7~9는 東洋文庫 소장본의 卷7~10을 3권으로 축약한 것이다.
- 12) 「益夫傳」(류탁일 소장)은 지방 아진층으로 추정되는 晚窩가 1880~1890년 사이에 판소리 사설 「춘향가」를 한문소설로 개작한 것이다. 내용은 총 9회의 回章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월매와 춘향간의 갈등, 수령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류준경, “『익부전』의 서사적 특징과 그 의미,” 『한국문화』 제31집(2003. 6), 77-107.)
- 13) 이창현, 『경관 방각소설 판본 연구』(서울: 태학사, 2000), 76. 京板 35장본(九州大學校 소장)은 刊記나 藏書記가 없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4) 김석배(1992), 98.

제4기(1910~1920년대)는 『춘향전』의 제작과 유통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서, 모두 51종 118책이 전해지고 있다.

寫本은 한글本과 國漢文混用本으로 제작된 19종 19책이 전해지고 있다. 주로 京板과 完板 『춘향전』, 이해조의 『옥중화』를 傳寫하거나 改作한 것들이고, 京板과 完板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거나 底本을 알 수 없는 寫本도 있다.

木板本은 한글本 8종 29책이 전해지고 있다. 京板 『춘향전』은 가장 축약된 형태인 16장본이 刊行되었고 完板 『춘향전』은 가장 확대된 형태인 84장본이 지속적으로 刊行되었다. 그러나 종이와 인쇄비 등 각종 물가가 상승¹⁵⁾하면서 경판 방각업자들은 新鉛活字本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수를 줄이고 刊行 비용과 판매 가격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것은 종이의 질이 떨어지고 誤刻과 脫刻이 많아 인쇄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1930년대 이후 京板 16장본이 전혀 刊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친 축약과 질적 저하는 京板 『춘향전』이 쇠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주 지역과 안성 지역의 방각업자들은 주변에 산이 많아서 종이와 板材 등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84장본과 20장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坊刻本은 주로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판매되었고 독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춘향전』을 읽을 수 있었다.¹⁶⁾

新鉛活字本 『춘향전』은 高宗 20년(1883) 일본에서 도입된 新鉛活字¹⁷⁾로 刊行되었으며, 현재 24종 70책이 전해지고 있다. 新鉛活字本을 발행한 출판사는 모두 22곳으로 서울 20곳, 충주 1곳, 남원 1곳이 있다. 1909년 출판법이 시행되고 역사전기소설 발행이 위축되면서, 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의 관심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면서도 꾸준히 인기를 끌어 왔던 『춘향전』에 집중되었다.¹⁸⁾ 소설의 내용은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개작하고 삽화와 채색 표지 사용, 版式의 변화를 통해 흥미성과 可讀性을 높여 주었다. 한자를 併記한 한글本과 漢文懸吐本까지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識者層이나 양반들도 즐겨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15) 李周映, 『舊活字本 古典小說 研究』(서울: 월인, 1998), 134-135.

16)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0), 139.

17) 천혜봉, 『한국서지학』(서울: 민음사, 2007), 408.

18) 李周映(1998), 41-60.

제5기(1930년대 이후)는 寫本과 木板本, 活字本 제작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시기로서 모두 8종 20책이 전해지고 있다. 이 시기에 발행된 『춘향전』은 ‘많은 인기를 얻었던 版本을 재판한 것, 표지만 바꾸고 版式과 내용은 동일한 것, 표지와 版式을 모두 바꿨으나 내용은 동일한 것’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출판사들은 간행 비용을 낮추기 위해 行間을 줄이고 삽화를 삭제하여 전체 면수를 줄여나갔다.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책이 유통되면서 新鉛活字本 『춘향전』은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어로 된 『춘향전』과 주석서가 출판되면서, 寫本과 刊行本の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3. 木板本 『춘향전』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

3.1 京板本

3.1.1 京板 30장본 계통

京板 30장본 계통은 3종 3책으로서, 卷首題는 모두 「춘향전 권지단」이다.

高宗 31년(1894) 이전 刊行本(동양어학교 소장)¹⁹⁾은 最先本으로서 30장 후면 1행까지 板刻되었으며 字體는 반흘림체와 흘림체가 혼용되었다. 30장에는 춘향의 忠節知行과 장부의 一片丹心을 강조하는 後記가 나온다(<그림 1> 참조).²⁰⁾

高宗 24년(1887) 이전 刊行本(연청도서관 소장)²¹⁾은 孝橋²²⁾에서 刊行된 것으로 동양어학교 소장본을 飜刻·補板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卷首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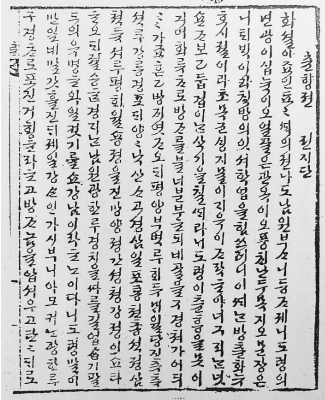
19) 이 판본을 소개하고 있는 『朝鮮書誌』(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eenne』 (Paris: s.n, 1894), 431-432)의 발행년도를 고려하여 추정한 것이다.

20) 金東旭·W.E.Skillend·D.Bouchez, 『景印古小説板刻本全集 5』 (서울: 羅孫書屋, 1975), 94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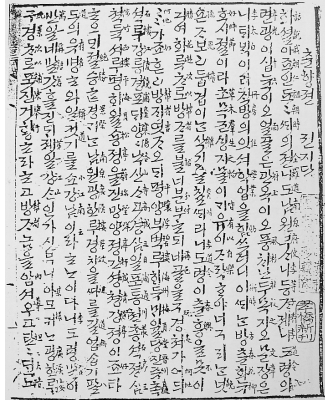
21) 李相澤(1998), 84-137.

22) 孝橋에서 刊行한 판본 중에 京板 32장본 『구운몽』은 高宗 24년(1887) 3월 布洞에서 刊行된 京板 29장본 『구운몽』보다 先行하는 판본이다. 그러므로 ‘孝橋’는 늦어도 高宗 24년(1887) 보다 이전에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창현(2000), 449-450).

아래에 ‘孝橋新刊’이라는 刊記가 새겨져 있으며, 卷末의 後記는 26자 정도 축소되어 30장 전면 14행까지만 板刻되어 있다. 魚尾 역시 11~12장, 17~20장, 25~26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양어학교 소장본과 다른 형태이다.



<그림 1> 동양어학교 소장 京板 30장본 1장 전면



<그림 2> 엔칭도서관 소장 京板 30장본 1장 전면

高宗 34년(1897) 이전 刊行本(東京外國語大學教 소장)은 엔칭도서관 소장본을 飜刻·補板한 것으로, 본문은 30장 전면 15행까지 板刻되어 있다. 刊記는 없지만 藏書印으로 볼 때, 高宗 34년(1897) 이전에 刊行된 것으로 추정된다.²³⁾ 11·12·19·20장의 字體는 반흘림체로서 엔칭도서관 소장본과 동일하지만 23~28장은 정자체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誤刻과 脫刻된 글자가 많이 나타난다.

3.1.2 京板 23장본 계통

京板 23장본 계통은 1종 2책으로, 高宗 26년(1889) 이전에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

23) 高等商業學校圖書印(제1장 전면), 東京外國語學校圖書(제2장 전면), 高等商業學校圖書印(제3장 전면), 高等商業學校圖書印 大正貳年貳月拾九日現在圖書(제30장 후면). 현재 동경외국어대학교가 고등상업학교라는 명칭을 사용 한 시기가 1887년이고, 동경외국어학교로 이름이 바뀌는 시기가 1897년이다(전상욱(2006), 25-26).

다.²⁴⁾ 卷首題는 「춘향전 권지다」²⁵⁾이고,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²⁶⁾와 기메박물관(Musée Guimet)에 소장되어 있다. 본문은 23장 전면 14행까지 板刻되어 있다.

3.1.3 京板 17장본 계통

京板 17장본 계통 『춘향전』(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1종 1책으로 光武 7년(1903) 이전에 刊行되었다.²⁷⁾ 卷首題는 「춘향전 권지다」이고 본문은 17장 전면 13행까지 板刻되어 있다. 1~10장의 내용과 版式은 京板 23장본과 동일하지만 11~17장은 글자가 작고 版式이 조밀하다. 이로 볼 때, 京板 17장본은 京板 23장본의 1~10장을 飜刻하고, 11~17장은 7장으로 축약·補板한 것으로 보인다.

3.1.4 京板 16장본 계통

京板 16장본 계통 『춘향전』은 모두 2종 11책으로, 卷首題는 「춘향전 권지단」이고 表題는 「춘향전」이다.

1920년 翰南書林에서 발행한 京板 16장본(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²⁸⁾은 編輯兼發行者가 白斗鏞이고, 본문은 16장 전면 16행까지 板刻되어 있다(<그림 3> 참조). 1~10장은 京板 17장본의 내용과 版式이 동일하지만 11~16장은 글자 크기가 작고 版式이 조밀하며 字體의 흘림이 더 심하다. 이로 볼 때, 京板 17장본의 1~10장을 飜刻하고, 11~17장은 6장으로 축약·補板한 것으로 보인다. 1921년 翰南書林 발행 京板 16장본(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일반 양지에 인쇄된 것으로 1920年本の 後刷本으로 보인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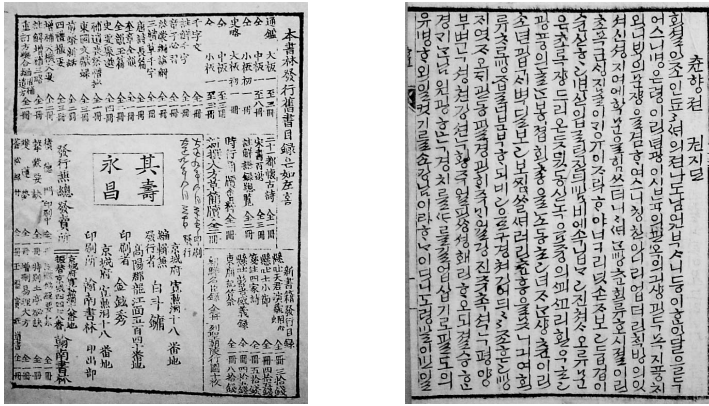
24) 1888~1889년에 조선을 다녀갔던 샤를 루이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7~1893)가 수집하여 기메박물관에 기증했다는 기록이 있다(전상욱(2006), 29).

25) 본래 ‘권지단’을 새겼는데 ‘ㄴ’ 받침 부분이 탈각되어 인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6) 설성경, 『춘향전 1』 (서울: 고려서림, 1987), 481-527.

27) 陰曆癸卯(1903)四月六日(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고서해제 X』 (서울: 평민사, 2008), 498).

28) 현재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2책,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중앙도서관, 서강대 로올라 도서관, 경북대 중앙도서관에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版權紙의 인쇄 및 발행년월일에는 ‘大正九年八月三十日’이라 加筆되어 있다.



<그림 3>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京板 16장본 版權紙(좌), 1장 전면(우)

지금까지 京板 『춘향전』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京板 『춘향전』

구분	卷首題	卷數	刊行地·刊行者	刊行年	字體
30장본 계통	춘향전 권지단	1책(30장)		高宗 31(1894) 이전	반흘림
	춘향전 권지단	1책(30장)	京城 孝橋	高宗 24(1887) 이전 변각 및 보판	반흘림
	춘향전 권지단	1책(30장)		高宗 34(1897) 이전 변각 및 보판	반흘림
23장본	춘향전 권지단	1책(23장)		高宗 26(1889) 이전	반흘림
17장본	춘향전 권지단	1책(17장)		光武 7年(1903) 23장본 변각 및 보판	흘림
16장본 계통	춘향전 권지단	1책(16장)	京城 翰南書林	1920 17장본 변각 및 보판	흘림
	춘향전 권지단	1책(16장)	京城 翰南書林	1921(추정) 1920年本の 後刷本	흘림

29) 印刷兼發行所 翰南書林 … 編集兼發行者 白斗鏞 … 印刷者 曹命天 … 大正十一年 二月二十五日 印刷 大正十一年 三月三十日 發行. 현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2책, 영남대 도서관에 1책, 한국학중앙연구원에 1책씩 소장되어 있다.

3.2 完板本

3.2.1 完板 26장본 계통

完板 26장본 『춘향전』(임형택 소장)³⁰은 隆熙 2년(1908) 9월 完西 지방(지금의 전주시 완서구 일대)에서 刊行된 것으로 卷首題는 「별춘향전이라」이다. 본문은 26장 후면 12행까지 板刻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京板 30장본과 동일한 교훈적 後記가 나온다. 12행 반흘림체와 14행 정자체, 13행 반흘림체로 된 여러 개의 板木을 이용하여 印出되었다.³¹ 張次 표기가 8장은 ‘七’, 9장은 ‘八’, 10장은 ‘九’, 11장은 ‘十’, 13장은 ‘十二’, 16장은 ‘十五’로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完板 26장본은 두 차례 이상 補板된 것으로 보인다.

3.2.2 完板 29장본 계통

完板 29장본 계통의 『춘향전』은 모두 2종 2책이다.

1914년 多佳書舖 刊行 完板 29장본(여태명 소장)³²은 卷首題가 「⊗ 별춘향전 이라극상」이고 著作兼發行者는 梁珍泰이다(<그림 4> 참조). 卷首題의 ‘극상(極上)’이란 표현은 다른 『춘향전』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29장 후면의 ‘광디 목도 슈니 쿵 ” ” ” ’ 대목과 소리대목(28개)의 行가름 부호(○, ●, ◐, ◑, ◇, ◎, ⊙, ⊕)를 고려할 때, 창본을 底本으로 하여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³³ 본문은 29장 후면 14행까지 板刻되어 있으며 16장은 낙장된 상태이다. 28~29장은 張次 표기가 각각 三十九와 四十으로 誤刻되어 있으며, 版心題와 行字數, 魚尾가 일정하지 않다. 이로 볼 때 두 차례 이상 補板하면서 行字數 조절을 통해 전체 분량을 29장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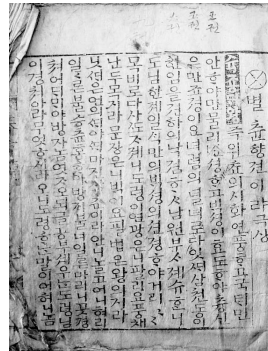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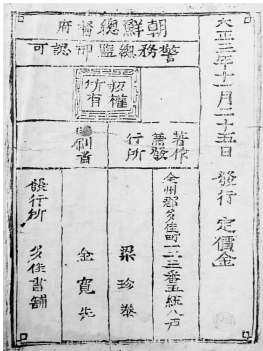
30) 戊申季秋完西新刊(26장 후면).

31) 1~9장은 12행 반흘림체, 10~15장은 14행 정자체, 16~20장은 12행 반흘림체, 21장은 13~14행 정자체, 22장은 13행 반흘림체, 23~26장은 14행 정자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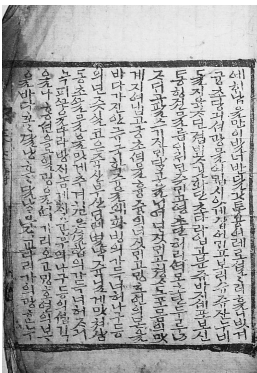
32) 大正三年(1914)十一月二十五日 發行 … 發行所 多佳書舖.

33) 김석배, “完板 坊刻本 별춘향전의 성격,” 『한국문학논총』 제11집(2000, 6), 39-87.

1932년 이전에 刊行된 完板 29장본(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³⁴⁾은 1914年本을 翻刻하면서 補板 과정을 거친 것으로, 卷首題는 「별별춘향전이라」이다. 본문은 29장 후면 14행까지 板刻되어 있으며, 卷首題의 첫 글자 ‘별’은 ‘니, ·, ㄹ’을 連書한 것이다(<그림 5> 참조). 이 글자는 다른 판본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받침 ‘ㄹ’을 이루고 있는 4획 중에서 첫 번째 획은 ‘·’를 변형한 표기이며, 이것은 ‘별, 발, 벌, 불, 불’과 분명 다른 형태이다(<표 3> 참조).



<그림 4> 여태명 소장 「별별춘향전이라극상」 版權紙(좌), 1장 전면(우)



<그림 5>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별별춘향전이라」 2장 전면(좌), 1장 전면(우)

34) 壬申(1932)年五月初七日(앞 표지).

<표 3> 1932년 이전 刊行本 「불별춘향전이라」 字體 비교

불(1:앞)	밭(2:뒤)	별(10:뒤)	별(1:앞)	불(9:앞)	불(13:앞)

3.2.3 完板 33장본 계통

完板 33장본 계통 『춘향전』은 현재 1종 3책이 전해지고 있다.

光武 10년(1906) 完山(지금의 전주)에서 刊行된 完板 33장본(김동욱 소장)³⁵⁾은 卷首題는 「열녀춘향수절가」이고, 본문은 33장 후면 5행까지 板刻되어 있다. 1~2장, 24장, 33장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24장의 字體는 다른 장과 달리 좌우가 평형한 정자체여서 후대에 補板된 것으로 보인다.

3.2.4 完板 84장본 계통

完板 84장본 계통 『춘향전』은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종 21책이 전해지고 있다. 卷首題는 상권 「열녀춘향수절가라」, 하권 「춘향전하권이라」이다.

隆熙 2년(1908) 龜洞에서 刊行된 完板 84장본(여승구 소장)은 最先本으로서, 상권은 隆熙 2년(1908) 5월, 하권은 같은 해 6월에 板刻되었다.³⁶⁾ 본문은 상권 45장 후면 10행, 하권 39장 후면 10행까지 板刻되어 있으며, 하권의 卷首題는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그림 6> 참조).

35) 丙午(1906)孟夏完山開(김동욱·김태준, 『影印解說古小說選』(서울: 개문사, 1977), 11-27).

36) 戊申(1908)仲夏龜洞新刊春香傳上終 … 戊申(1908)季夏龜洞新刊春香傳上終.



<그림 6> 여승구 소장 完板 84장본 하권 39장 후면(좌), 상권 1장 전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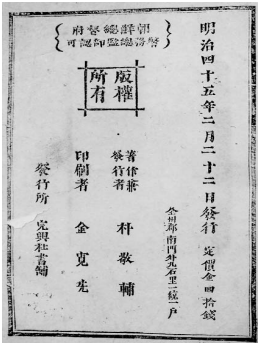
1912년 完興社書舖에서 발행한 完板 84장본(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朴敬輔이다.³⁷⁾ 본문은 상권 45장 후면 10행, 하권 39장 후면 10행까지 板刻되어 있다. 하권 18장은 글자 크기 작고 版式이 조밀하여 후대에 補板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참조).

完西溪書舖 발행 完板 84장본(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³⁸⁾은 完興社書舖 刊行本과 동일한 판본이다. 西溪書舖 刊行本을 傳寫한 『열여춘향전』(장서각 소장)을 고려할 때, 1915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권 45장 후면에는 ‘春香傳上終’, 하권 39장 후면에는 ‘完西溪書舖’라는 刊記가 있다(<그림 8> 참조).

37) 著作兼發行者 朴敬輔 … 印刷者 金寬先 … 明治四十五年二月二十二日 發行. 이와 동일한 판본이 1책 더 있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8) 이와 동일한 판본 2책이 장서각과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검색 결과 西溪書舖에서는 대체로 1911년 刊行本이 많고 『簡禮彙纂』만 1915년에 刊行되었다. 이것을 고려할 때, 西溪書舖의 활동 하한년대는 191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춘향전』 刊行本の 系統 및 書誌의 特徵에 관한 研究



<그림 7>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完板 84장본 版權紙(좌), 하권 1장 전면



<그림 8>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完板 84장본 刊記(좌), 하권 1장 전면(우)

1916년 多佳書舖에서 발행한 完板 84장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³⁹⁾은 完西溪書舖 刊行本과 동일한 판본으로서, 著作兼發行者와 印刷所兼印刷者는 梁珍泰이다. 多佳書舖의 梁珍泰이 梁元仲으로부터 西溪書舖를 인수할 때 板木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상권 45장과 하권 39장 후면에는 板刻되어 있던 글자를 제거한 흔적이 있다. 梁珍泰가 完西溪書舖 板木의 刊記 ‘春香傳上終’(상권 45장 후면)과 ‘完西溪書舖’(하권 39장 후면)를 제거한 후 多佳書舖 版權紙를 붙여서

39) 發行所 全羅北道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 一百二十三番地, 大正五年十月二日. 이와 동일한 판본 4책이 규장각, 장서각, 서강대 도서관, 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16년에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쇄상태가 고르지 않고 글자의 번짐이 많기 때문에 完西溪書舖 刊行本の 後刷本으로 보인다. 경북대 도서관 소장의 1916年本에는 ‘分賣所 京鄉各書館’가 추가된 多佳書舖 版權紙가 붙어 있다.⁴⁰⁾

1949년 朝鮮珍書刊行會에서 발행한 完板 84장본(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完西溪書舖의 판목을 이용하여 50부 한정판으로 발행한 後刷本이다.⁴¹⁾ 編輯兼 發行者는 吳漢根이고 부록에는 김삼불의 해제가 실려 있다.

지금까지 完板 『춘향전』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完板 『춘향전』

구분	卷首題	卷數	刊行地·刊行者	刊行年	字體
26장본 계통	별춘향전이라	1책	完西	隆熙 2(1908) 보판	반흘림
29장본 계통	⊗ 별춘향전이라극상	1책	全州 多佳書舖	1914 번각 및 보판	반흘림
	불별춘향전이라	1책		1932 이전 번각 및 보판	반흘림
33장본 계통	열여춘향슈절가	1책	完山	光武 10(1906) 보판	정자
84장본 계통	열여춘향슈절가라(상) 춘향전하권이라(하)	2卷 1책	全州 龜洞	隆熙 2(1908)	정자
	열여춘향슈절가라(상) 춘향전하권이라(하)	2卷 1책	全州 完興社書舖	1912	정자
	열여춘향슈절가라(상) 춘향전하권이라(하)	2卷 1책	全州 完西溪書舖	1915 이전(추정)	정자
	열여춘향슈절가라(상) 춘향전하권이라(하)	2卷 1책	全州 多佳書舖	1916 後刷	정자
	열여춘향슈절가라(상) 춘향전하권이라(하)	2卷 1책	서울 朝鮮珍書刊行會	1949 後刷	정자

40) 大正五年十月七日 印刷 大正五年十月八日 發行 … 著作印刷兼發行者 梁珍泰 印刷者 ○○○ 發行所 多佳書舖 分賣所 京鄉各書館.

41) 이와 동일한 판본이 현재 연세대 도서관 2책,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도서관, 장서각, 여승구, 김동욱 등에 각각 1책씩 소장되어 있다.

3.3 安城板本

安城板 『춘향전』 계통은 3종 4책으로, 모두 20장본이고 卷首題는 「춘향전 권지단」이다. 20장 후면에는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刊記가 있다.

光武 10년(1906) 이전에 刊行된 安城板 20장본(서강대 도서관 소장)은 最先本으로서 안성 동문리에서 간행되었으며 字體는 흘림체이다(<그림 9> 참조).⁴²⁾ 본문은 20장 후면 11行까지 板刻되었고, 각 장마다 背紙를 덧대는 등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이 판본은 1910년 미동(美洞)과 궁내정동(宮內井洞)에서도 소장되었는데, 이곳은 일제시대 때 黃金町一丁目으로 편입된 지역이다.⁴³⁾ 당시 貰冊家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으로서 지금의 소공동·덕수궁 일대로 보인다.



<그림 9> 서강대 도서관 소장 安城板 20장본 刊記(좌), 1장 전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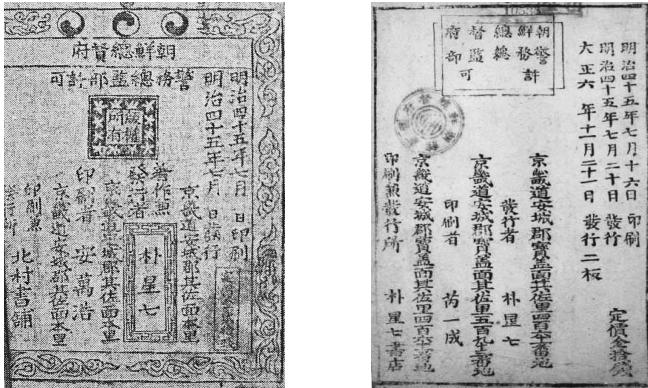
1912년 北村書舖 발행 安城板 20장본(김동욱 소장)⁴⁴⁾은 光武 10년(1906) 이전 刊行本の 後刷本으로서 著作兼發行者는 朴星七이다. 출판법(1909)이 시행된 후 刊行되었기 때문에 版權紙에는 ‘初版’으로 명시되어 있다(<그림 10> 참조).

42) 병오(1906)정월일공동칙 경술(1910)이월일미동궁내정동칙.

43) 이정원, “안성판 坊刻本의 소설 판본,” 『한국고전연구』 제14집(2006. 10), 219-244.

44) 明治四十五年七月 日 印刷, 明治四十五年七月 日 發行 京畿道 安城郡 基佐面 本里 著作兼發行者 朴星七 … 印刷者 安萬浩 … 印刷兼發行所 北村書舖.

1917년 朴星七書店 발행 安城板 20장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1912년 刊行本の 後刷本으로서 發行者는 박성칠이다.⁴⁵⁾ 版權紙에는 1912년 刊行本の ‘再版’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安城板 20장본 版權紙 1912年本(김동욱 소장, 좌), 1917年本(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우)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1912년 刊行本과 1917년 刊行本은 모두 光武 10년 (1906) 이전에 동문리에서 刊行된 판本の 後刷本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安城板 『춘향전』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표 5>과 같다.

<표 5> 安城板 『춘향전』

구분	卷首題	卷數	刊行地·刊行者	刊行年	書體
20장본 계통	춘향전 권지단	1책(20장)	안성	光武 10(1906) 이전	흘림
	춘향전 권지단	1책(20장)	안성 北村書舖	1912 初版	흘림
	춘향전 권지단	1책(20장)	안성 朴星七書店	1917 二版	흘림

45) 大正六年十一月二十一日 發行 二板, 京畿道 安城郡 寶蓋面 其佐里 四百六十一番地 發行者 朴星七, 京畿道 安城郡 寶蓋面 其佐里 五百九十三番地 印刷者 芮一成, 京畿道 安城郡 寶蓋面 其佐里 四百六十一番地 印刷兼發行所 朴星七書店.

3.4 書誌的 性格

3.4.1 字體

木板本 『춘향전』 19종의 字體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전체적으로는 흘림체 5종, 반흘림체 8종, 정자체 6종으로 나타났다. 京板은 흘림체 2종과 반흘림체 5종, 完板은 반흘림체 3종과 정자체 6종, 安城板은 흘림체 3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 따라 독자층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京板의 독자층은 흘림체를 읽을 수 있는 양반과 중인 계층이었고, 完板의 독자층은 농민이나 노동자 같은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읽기 쉬운 반흘림체와 정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木板本 『춘향전』 字體 분석

지역 \ 서체	京板	完板	安城板	계
흘림체	2	·	3	5
반흘림체	5	3	·	8
정자체	·	6	·	6
합계	7	9	3	19

둘째, 京板과 完板의 字體가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보였다. 京板 『춘향전』의 字體 변화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흘림체나 반흘림체에서 정자체로 변해가는 유형(①), 정자체나 반흘림체에서 흘림체로 변해가는 유형(②),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유형(③)이다. 完板 『춘향전』의 字體는 대체로 흘림체에서 정자체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였고, 安城板 『춘향전』은 1912년·1917년 刊行本 모두 後刷本이기 때문에 字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표 7> 참조).

<표 7> 『춘향전』 字體 비교표

구분		인도" (①)	허야(①)	화설(②)	아조(②)	보고(③)	쇼강남(③)
京板 『춘향전』	高宗31年 (1894)本						
	光武7年 (1903)本						
	1920年本						
구분		일	허	정	고	절	니
完板 『춘향전』	隆熙 2年 (1908)本						
	隆熙 2年 (1908)本						
	1912年本						
구분		화설	보고	밤비	인도"	관옥	승춘
安城板 『춘향전』	光武10年 (1906)本						
	1912年本						
	1917年本						

3.4.2 刊行地 및 刊行者

3.4.2.1 서울 지역

京板 『춘향전』의 刊行地를 알 수 있는 것은 高宗 24년(1887) 이전에 刊行된 京板 30장본의 ‘孝橋’가 유일하다. ‘孝橋’는 당시에 ‘孝經橋’라고도 불렀던 다리로서 ‘孝橋洞’에 위치하고 있다.⁴⁶⁾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종로 4가와 중구 주교동

부근으로 보이며, 소설 1종과 비소설 3종을 발행했던 곳이다.⁴⁷⁾ 비교적 규모가 영세했기 때문에 상호를 내걸지 못하고 洞名을 사용하여 卷首題 아래에 ‘孝橋新刊’이라고 새긴 것으로 보인다.⁴⁸⁾

1920년 京板 16장본을 발행한 翰南書林은 舊書(坊刻本)와 新書(活字本)를 동시에 발행한 곳으로, 編輯兼發行者는 白斗鏞이며 京城府 寬勳洞 十七番地에 위치하고 있었다. 印刷所와 發行兼總發賣所가 모두 翰南書林이어서 출판과 서점을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翰南書林은 19세기에 활동한 방각소 由洞, 宋洞, 紅樹洞과 같이 실용서보다는 소설류를 주로 출판하였다.⁴⁹⁾

3.4.2.2 전주 지역

전주 지역은 坊刻本 刊行에 필요한 종이와 板材, 刻手 등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었다. 예로부터 전주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楮田 3028곳 중에서 1/3이 몰려 있을 정도로, 한지 생산을 生業으로 하던 곳이다.⁵⁰⁾ 또한 주변에 蘆嶺山脈, 高德山, 多佳山이 있어서 板材를 구하기가 매우 쉬웠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 때문에 完板 84장본 형태를 계혹 刊行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完板 『춘향전』을 주로 刊行한 곳은 府南面 半石里와 府西面 多佳町이다. 全州郡 府南面 半石里는 高德山 아래 龜洞으로서 흔히 龜石리나 九石리라고도 부른다(<그림 11> 참조). 完板 84장본 중에서 隆熙 2年(1908)本과 1912年本이 刊行된 곳이다. 完南 지방(전주의 남문인 豐南門 밖)의 南川邊에 있었으며, 지금의 전주시 棲鶴洞 일대로 보인다. 이곳은 수공업과 상업을 하는 평민들의 집단 거주지였으며, 板刻 능력이 있는 사람은 刻手로 고용되어 서적 刊行에 참여하였다.⁵¹⁾ 版權紙 주소지가 全州郡 九石里인 完興社書舖 역시 半石里(龜洞)에서

46)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03),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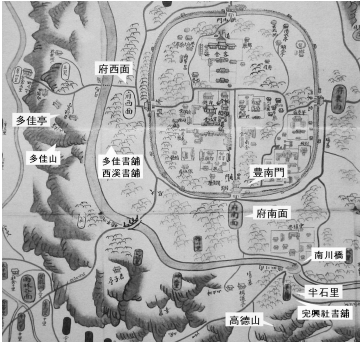
47) 소설류는 京板 32장본 『구운몽』, 비소설류는 『簡禮彙纂』과 『直星行年便覽』, 木活字本 『千字文』(1책)을 刊行하였다.

48) 류탁일(1980), 4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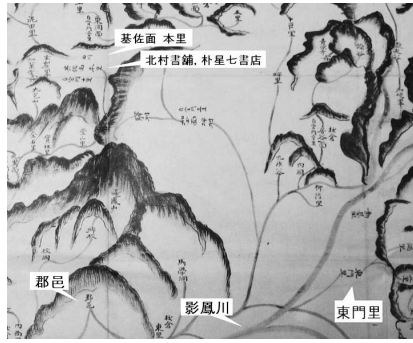
49)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170-177.

50) 金三基, “朝鮮後期 製紙手工業 研究,”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3), 101-104.

운영되었으며, 이 지역 書舖 중에서 가장 실적이 적은 곳이다.⁵²⁾



<그림 11> 19세기 후반 完板
『춘향전』 刊行 지역⁵³⁾



<그림 12> 19세기 安城板 『춘향전』
刊行 지역⁵⁴⁾

全州郡 府西面 多佳町은 完西溪書舖와 多佳書舖가 위치했던 곳으로, 여기서는 1914년 完板 29장본과 1915년 이전 刊行 完板 84장본, 1916년 完板 84장본이 발행되었다. 府西面 多佳町은 多佳山 아래에 있는 마을이어서 龜洞과 더불어 坊刻本 刊行에 필요한 자재를 수급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는 수공업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刻手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었다.

西溪書舖는 비소설류 8종, 국문소설류 10종을 刊行하였다. 著作兼發行人은 卓鐘佶(1883-1947)이고 印刷兼發行人은 梁元仲이다.⁵⁵⁾ 卓鐘佶은 27세 때 西溪書舖를 경영하였는데 출판업이 쇠퇴하자 갓신 제조업으로 바꾸고, 書舖는 梁元仲을 거쳐 그의 동생인 梁珍泰에게 인계하였다.⁵⁶⁾ 多佳書舖는 完板 84장본 중에

51) 柳鐸一(1990), 144-145. 『쇼더성전』(戊申仲春完龜洞新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경전』(戊申孟夏完龜洞新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 刊行되기도 하였다.

52) 柳鐸一(1990), 230.

53) 서울대학교 奎章閣, 『朝鮮後期 地方地圖: 全羅道編』(부산: 民族文化, 2005).

54) 서울대학교 奎章閣, 『朝鮮後期 地方地圖: 京畿道編』(부산: 民族文化, 2005).

55) 1911년 西溪書舖 발행 『도웅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版權紙에 따르면, 著作兼發行者 卓鐘佶의 주소지는 全州郡府西四契十三統六戶, 印刷兼發行者 梁元仲의 주소지는 全州郡府西四契十七統六戶, 印刷兼發行所 西溪書舖의 주소지는 全州郡府西四契이다.

서 1916年本을 刊行한 곳으로, 著作兼發行者와 印刷所兼印刷者는 모두 梁珍泰이다. 梁珍泰는 자신의 형이자 西溪書舖를 경영했던 梁元仲이 죽자 그 書舖를 인수하였고, 이때 完西溪書舖의 板木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3.4.2.3 안성 지역

安城板 20장본은 光武 10년(1906) 이전에 동문리에서 처음 刊行되었으며, 출판법(1909년)이 시행된 후에는 1912년 北村書舖, 1917년 朴星七書店에서 刊行되었다. 세 판본에는 모두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刊記가 있는데, ‘동문리’는 당시 안성군 동쪽 20리 정도 거리에 있던 마을이다. 그런데 北村書舖의 위치는 基佐面 本里이고, 朴星七書店의 위치는 寶蓋面 其佐里이다. 이곳은 당시 안성군 북쪽 15리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1914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基佐面 本里가 寶蓋面 其佐里로 변경되었으므로, 北村書舖의 本里와 朴星七書店의 其佐里는 같은 지역으로 보인다(<그림 12> 참조).

이로 볼 때, 박성칠은 최초 東門里에서 朴星七書店을 운영하였으며, 종이값이 상승하자 한지 생산과 수급이 훨씬 수월한 基佐面으로 옮긴 것이다. 基佐面 本리는 주변에 산이 많고 닳나무나 破古紙를 원료 삼아 한지를 생산하던 곳⁵⁷⁾으로, 坊刻本 刊行에 필요한 입지 조건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

4. 活字本 『춘향전』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

4.1 新鉛活字本

4.1.1 國漢文混用本

國漢文混用本 『춘향전』은 이해조의 『옥중화』를 포함하여 모두 5종 31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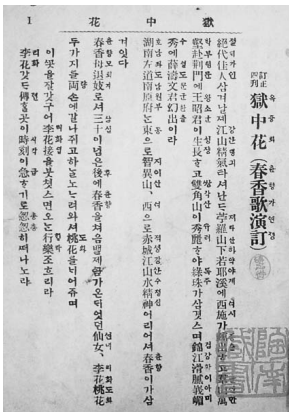
56) 柳鐸一(1990), 222-223.

57) 정용완, 『積財울의 발자취』 (안성: 자비출판, 2000), 53.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옥중화」 계통에 해당된다.

「옥중화」는 1912년 8월 普及書館에서 발행한 최초의 新鉛活字本 『춘향전』이다. 이것은 李海朝가 박기홍 唱本の 「춘향가」를 개작하여 1912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每日新報>에 연재한 것을 金容俊이 단행본으로 발행한 것이다.⁵⁸⁾ 17권까지 재판되었으며 活字本 『춘향전』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21책이 전해지고 있다. 最先本은 1913년 6월 普及書館에서 발행한 4권(영남대 도서관 소장)이며, 表題는 「獄中花」이고 內題는 「訂正四刊 獄中花(春香歌演訂)」이다(<그림 13> 참조). 면당 11행에 전체 188면으로 되어 있으며 삽화는 3장이 수록되어 있다. 삽화 1과 3에는 落款이 찍혀 있어서 전문적인 삽화가가 그린 보인다.

1913년 발행 5권 「訂正五刊 獄中花(春香歌演訂)」(여승구 소장)과 1914년 발행 6권 「訂正六刊 獄中花(春香歌演訂)」(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는 ‘광한루에서 이도령이 방자를 보내 춘향을 부르는 장면’을 그린 삽화가 추가되었다. 또한 6권에는 서책과 꽃이 그려진 채색 표지가 사용되었다(<그림 14> 참조).



<그림 13> 영남대 도서관 소장
1913년 발행 「獄中花」 4권 1면



<그림 1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4년 발행 「獄中花」 6권 표지

58) <每日新報>의 연재면에는 ‘名唱朴起弘 調 解觀子刪正’이라 밝히고 있다.

1917년 博文書館 발행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면당 13행에 전체 157면으로 되어 있으며, 삽화가 모두 본문 앞에 나온다. 1920년 12월 大昌書院 발행 『訂正八刊 獄中花(春香歌演訂)』(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1913년 발행된 5판과 동일한 版式이며, 編譯者 李海朝를 생략하고 勝木良吉이 著作兼發行者로 되어 있다. 1921년 博文書館 발행 17판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1917년 발행본과 동일한 版式이고 삽화는 11장으로 늘어났다. 춘향과 이도령의 모습을 그린 삽화는 채색되어 있다.

1923년 大昌書院·普及書館에서 공동 발행한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영남대 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玄公廉이고, 면당 11~21행에 174면으로 되어 있다. 1926년 6월 博文書館 발행으로 보이는 6판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영남대 도서관 소장)은 發行者가 盧翼亨이고 삽화는 없다.

이처럼 『옥중화』는 17판까지 발행되며 독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소설의 중심 내용이 ‘신분과 갈등’에서 ‘사랑과 애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도령이 변학도를 용서한다는 점도 탐관오리의 懲治나 춘향의 항거보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1915년 12월 朝鮮書館 발행 『특별무쌍춘향전』은 著作兼發行者가 朴健會이다. 1917년 1월 朝鮮書館에서 재판이 발행되었고 1920년 8월 唯一書館에서 4판을 발행하였다. 현재 재판 1책과 4판 2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表題는 모두 『特別無雙春香傳』으로 동일하다. 1917년에 발행된 재판의 채색 표지에는 ‘이몽룡이 방자를 앞세우고 춘향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타원 안에 그려져 있고, 춘향을 상징하는 모란꽃이 원을 둘러싸고 있다(<그림 15> 참조). 본문은 총 14회로 된 回章體 형식이고 현토한문체로 된 讀春香傳四法⁵⁹⁾을 제시하였다. 음란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고 다른 『춘향전』에서 볼 수 없는 ‘두 주인공이 첫날 밤 漢詩를 주고받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삽화 2장은 등장인물인 구관사또, 이도령, 만고령녀 춘향, 이력찬 방자, 능청스런 춘향어미, 정숙한 향단의 모습과 기생점고하는 장면이다. 19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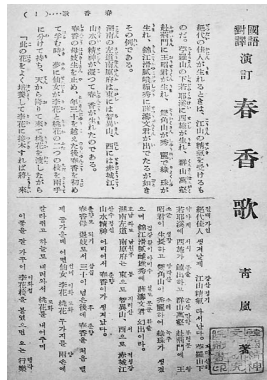
59) 춘향전은 술을 마시거나 거문고를 타면서, 달이나 꽃을 바라보면서 읽어야 한다(一日飲酒讀 二日彈琴讀 三日對月讀 四日看花讀).

에 발행된 4판(영남대 도서관 소장)에서는 삽화가 9장으로 늘어나는데, ‘절대가인 춘향과 풍류지사 이도령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채색 삽화도 등장한다.

1921년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고디소설옥중가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1921년 博文書館에서 발행된 17판 『訂正九刊 獄中花(春香歌演訂)』와 표지 및 서두 부분 내용만 다르고 版式과 삽화는 모두 동일하다.

1932년 世昌書館 발행 『만고렬녀 도상옥중화』는 內題 아래에 ‘李國唱 唱本, 無然居士 校錄’이라고 되어 있다. 李國唱은 원각사와 조선성악연구회 등을 통해 창극 운동을 주도했던 이동백으로 추정된다.⁶⁰⁾ 현재 초판본은 없고 1952년 世昌書館에서 申泰삼이 발행한 重刊本만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8장으로 구성된 回章體 형식이고, 삽화는 ‘도상’이란 冠飾을 사용한 것처럼 비교적 많은 39장이 수록되었다.

1942년 永昌書館 발행 『國語對譯 演訂 春香歌』(장서각 소장)는 著作兼發行者가 大山治永이고, 1면의 內題 아래에는 ‘靑嵐 著’라고 나와 있다. 본문 상단은 일어번역본이고 하단은 國漢文混用으로 되어 있다(<그림 16> 참조). 판형이나 출판사만 다를 뿐 내용은 『옥중화』와 大同小異하다.



<그림 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7년 발행 재판 「특별무쌍춘향전」 표지 <그림 16> 장서각 소장 1942년 발행 「國語對譯 演訂 春香歌」 1면(좌)

60) 최혜진, “도상옥중화(圖像獄中花) 연구,” 『관소리연구』 제7집(1996. 7), 260.

『춘향전』 刊行本の 系統 및 書誌의 特徵에 관한 研究

지금까지 新鉛活字本 『춘향전』 國漢文混用本の 계통과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新鉛活字本 『춘향전』 國漢文混用本

구분	內題	卷數	發行所	發行年	편집배열방식	기타
옥중화 계통	訂正四刊 獄中花	1책	京城 普及書館	1913年 4판	앞표지-광고지-본문(삼화)- 광고지-版權紙	삼화 3장 東裝, 國판형
	특별무쌍 춘향년	1책	京城 朝鮮書館	1917年 재판	앞표지-삼화-讀法-목차-본 문-版權紙-뒷표지	삼화 2장 平裝, 國판형
	고디소설 옥중가인	1책	미상	1915年 이후	앞표지-본문-뒷표지	平裝, 國판형
	國語對譯 演訂 春香歌	1책	京城 永昌書館	1942年	앞표지-내지-본문-版權紙- 광고지-뒷표지	平裝, 國판형
	만고렐너 도상옥중화	1책	京城 世昌書館	1952年 재판	앞표지-본문(삼화)-版權紙 (광고지)-뒷표지	삼화 39장 平裝, 國판형

4.1.2 한글本

4.1.2.1 「옥중화」 계통

「옥중화」 계통은 1912년 발행된 「옥중화」를 底本으로 하여 改作하였거나 版式을 달리하여 발행된 것으로, 모두 14종 26책이 전해지고 있다.

1913년 7월 唯一書館 발행 「신역별춘향가」(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編輯兼發行者가 南宮濬이고 改作者는 東溪 朴頤陽⁶¹⁾이다. 新鉛活字本 『춘향전』 중에서 처음으로 채색된 표지와 回章體 형식, 띄어쓰기가 사용되었다. 표지에는 광한루로 보이는 정자와 춘향을 상징하는 모란꽃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으며, 表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내리듯 대각선으로 되어 있다(<그림 17> 참조). 본문은 총 24절⁶²⁾로 나뉘어져 있는데, ‘광한루에서 이도령이 방자를 보내 춘향을 부르는 장면’은

61) 1913년 唯一書館 발행 「개량 사성괴봉」(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編者이며, 1916년 발행 「諺文懸吐進등신화」(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懸吐를 擔當한 인물이다.

62) 데일절 남원광한루, 데이절 도령님이방즈와수작, 데슴절 방즈가춘향을부르라감, 데스절 도령의글넉는모양, 데오절 춘향의가덕, 데륙절 춘향모의허훈, 데칠절 스랑가, 데팔절 남원부사갈

세분화하고,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과 관련이 없는 사실은 축소·생략하였다.

1913년 12월 東美書市 발행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은 著作兼發行者가 李容漢이다. 1916년에는 表題와 內題를 각각 「增修春香傳증수춘향전」과 「증수춘향전」으로 바뀌어 3판이 발행되었고, 1918년과 1923년에는 표지 그림을 달리하여 淮東書館에서 각각 4판과 5판을 발행하였다. 현재 초판과 4판이 각각 1책씩 전해지고 있다. 초판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영남대 도서관 소장)에는 채색 표지가 사용되었고 삽화 8장이 실려 있는데, 落款이 찍혀 있어서 전문적인 삽화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그림 18> 참조). 본문은 13회로 구성된



<그림 1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3년 발행 「신역별춘향가」 표지



<그림 18> 영남대 도서관 소장 1913년 발행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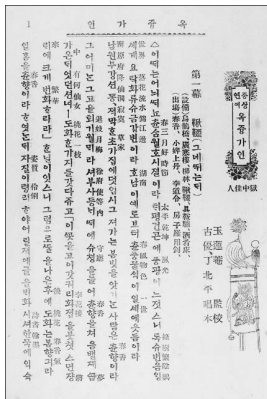
回章體 형식이며, 춘향의 정절을 강조하기 위해 수청 거부 대목을 구체화하였다. 1918년 발행된 4판 「증수춘향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⁶³⁾은 분량을 110면으로

너치형흥, 데구절 리별가, 데십절 신관의도임, 데십일절 기성점고, 데십이절 남원부관당, 데십삼절 수절춘향이형장을당함, 데십스절 옥중에서허봉사의희몽점, 데십오절 리도령이알성과급데함, 데십륙절 전라도어스암형, 데십칠절 만복사, 데십팔절 농부가, 데십구절 어스춘향의 집에또감, 데이십절 어스옥에감, 데이십일절 남원부사성일잔치와어스의글지음, 데이십이절 암형어스출도, 데이십삼절 남원부중에과부등장, 데이십스절 춘향모의궁동이춤.

63) 版權紙를 보면, 分賣所가 廣韓書林, 廣益書館, 東美書市, 東實堂書舖, 大正書館, 共誠商

줄이고, 초판에 있는 삽화 1·2를 삭제하였다.

1914년 4월 新舊書林 발행 『증상연예옥중가인』(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丁北平 唱本을 教監하여 池松旭이 발행한 것으로, 表題는 『增像演藝獄中佳人(漢鮮文春香傳)』이다. 1923년까지 총 13차례 재판되었으며 현재 9책이 전해지고 있다. 池松旭은 초판의 序文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교훈적 가치와 진가를 알리기 위해 『춘향전』을 개작·출판하였다고 밝혔다. 초판의 표지에는 춘향과 이도령을 상징하는 대화꽃과 나비, 모란꽃이 나오는 胡蝶圖가 그려져 있고 落款이 찍혀 있다 (<그림 19> 참조). 본문 앞에는 序文과 삽화 9장이 있는데, 삽화 1·3을 제외한 나머지는 초판 『鮮漢文春香傳』과 동일한 落款이 찍혀 있어서 같은 삽화가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전체 19막(64)으로 구성된 回章體 형식이고, 각 막의 제목에는 設備(장소, 무대, 소품), 出場(배우, 등장인물) 등을 명시하였다. ‘△…△’은 연극에 응용할 수 있는 노래대목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1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4년 발행 「증상연예옥중가인」 1면(좌), 표지(우)

店 등 6곳이어서, 당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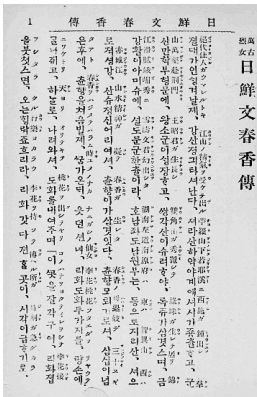
- 64) 제1막 그네뛰는디, 제2막 칩방에글넉는디, 제3막 빙년결약하는디, 제4막 사랑노리, 제5막 리별, 제6막 슈심상사, 제7막 신관도입, 제8막 기싱덤고, 제9막 춘향잡혀오는디, 제10막 춘향옥에갓 치는디, 제11막 리도령과거보는디, 제12막 어스남원느려오는디, 제13막 옥중에서희몽하는디, 제14막 어사춘향집촉츠오는디, 제15막 어사옥에차자가는디, 제16막 신관싱일잔치하는디, 제17막 어사출도하는디, 제18막 어사춘향을방송하는디, 제19막 어사와춘향의감구정담.

1916년 1월 世昌書館 발행 「獄中佳花」(장서각 소장)는 著作兼發行者가 姜義永이고 內題는 「特定新刊 春香傳」이다. 서두 부분에서 춘향모가 춘향의 추천을 권유하는 대목이 있다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이해조의 「옥중화」와 비슷하다.

1917년 7월 漢城書館·唯一書館에서 공동 발행한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南宮楔이다(<그림 20> 참조).⁶⁵⁾ 타 원 안에 춘향의 모습과 대나무, 매화가 그려진 채색 표지를 사용하였고, 본문의 行間에는 일본어를 併記하였다.

1917년 9월 漢城書館 발행 「(演)演訂정春춘香향傳傳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編輯兼發行者가 南宮楔이다. 表題는 「南原 獄中花(춘향전)」이며, 표지에는 광한루 부근의 경치를 담은 부채와 꽃이 그려져 있다(<그림 21> 참조).

1918년 12월 大昌書院·普及書館에서 공동 발행한 「新獄中佳人」(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石田孝次郎이다. 1921년과 1922년에 「絶代佳人 춘향전」으로 內題를 바꾸어 각각 재판과 3판을 발행하였다.



<그림 2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7년 발행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 1면(좌), 표지(우)

65) 초판의 重刊本으로 보이는 판본이 현재 영남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29년 1월 朝鮮圖書株式會社에서 발행되었고, 發行者는 朝鮮圖書株式會社 洪淳泌이다.

1920년 11월 大昌書院·普及書館에서 공동 발행한 『절디가인 춘향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李敏澤이다. 1923년과 1924년에 각각 표지만 달리하여 재판과 3판⁶⁶⁾이 발행되었으며, 현재 초판 1책과 재판 1책이 전해지고 있다. 초판에는 원근법이 적용된 채색 표지가 사용되었으며, 表題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대각선 쓰기로 되어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7년 발행 「(演演訂정春香傳)」 표지



<그림 2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20년 발행 「절디가인 춘향전」 표지

1923년 匯東書館 발행 『증수춘향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高裕相이다. 내용과 版式은 1913년 발행된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과 동일하고 표지 그림과 삽화 내용만 일부 달라졌다.

1924년 4월 永昌書館·韓興書林에서 공동 발행한 『만고렬녀 춘향전』(영남대 도서관 소장)은 表題가 『絶代佳人 成春香傳 성춘향전』이고 編輯兼發行者는 姜義永이다. 삽화 12장에는 영창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金基昌의 落款이 찍혀 있다(<그림 23> 참조). 1925년 德興書林에서 表題를 『萬古烈女 언문 春香傳(춘

66) 1923년 1월 발행된 『절디가인 춘향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 3판으로 추정된다. 版權紙에 따르면 초판은 1920년 1월에, 재판은 1920년 2월에 발행되었다.

향전』으로 바뀌 재판을 발행하였다. 현재 초판과 재판이 1책씩 전해지고 있다.

1924년 10월 永昌書館·韓興書林에서 공동 발행한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영남대 도서관 소장)은 表題가 「絶代佳人」이고 著作兼發行者는 姜義永이다. 1933년 「獄中絶代佳人 옥중절대가인」으로 內題를 바꿔 재판을 발행하였다. 초판의 삽화 13장은 1924년 발행 「만고렬녀 춘향전」의 삽화에다가 ‘이도령이 춘향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의 채색 삽화 1장을 추가한 것이다(<그림 24> 참조).



<그림 23> 영남대 도서관 소장 1924년 발행 「만고렬녀 춘향전」 삽화



<그림 24> 영남대 도서관 소장 1924년 발행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 삽화(좌)

1925년 10월 滙東書館 발행 「고디소설 언문춘향전」(영남대 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高裕相이며 表題는 「春香傳(춘향전)」이다. 版權紙 뒷면에는 ‘滙東書館大邱支店’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928년 1월 廣韓書林 발행 재판본 「懷中 春香傳 춘향전」(영남대 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金天熙이고 문고본으로 발행되었다. 表題는 「春香傳(소춘향가)」이며 內題 아래에는 ‘부신식창가급장가’라는 부제가 있다. 版權紙가 일부 훼손되어 초판 발행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표지에는 ‘광한루에서 방자가 춘향을 부르러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그림 25> 참조).

1934년 12월 永昌書館·韓興書林·振興書林에서 공동 발행한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영남대 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姜義永이다. 表題는 『萬古烈女特別無雙 新春香傳(신춘향전)』이고 內題 아래에는 ‘(鮮漢文春香傳)’라는 부제가 있다. 표지 그림은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안겨 있는 모습이고, 삽화수는 모두 19장으로 본문 앞에 있다(<그림 26> 참조). 인물과 배경묘사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섬세한 느낌을 줘서 마치 만화를 보는 듯하다. 춘향모가 꿈꾸는 장면(삽화 1), 춘향모 앞에서 춘향이와 이도령이 술잔을 주고받는 모습(삽화 7), 이도령과 춘향모가 술잔을 나누는 장면(삽화 13), 춘향의 미모에 감탄하는 신관 장면(삽화 19) 등은 다른 活字本 『춘향전』에 없는 그림이다.



<그림 25> 영남대 도서관 소장 1928년 발행
문고본 「懷中 春香傳 춘향전」 표지



<그림 26> 영남대 도서관 소장 1934년
발행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 표지

4.1.2.2 非 「옥중화」 계통

非 「옥중화」 계통의 活字本 『춘향전』은 모두 5종 9책이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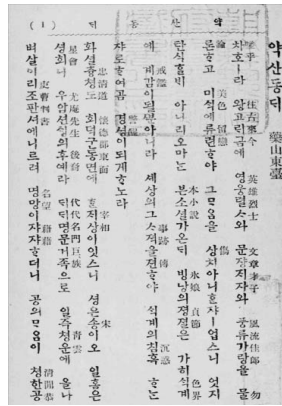
1913년 4월 東洋書院 발행 『倫理小說廣寒樓』(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著作兼發行者가 閔濬鎬이고 表題는 「倫理小說廣寒樓 증정특별춘향전」이다. 표지

그림은 원근법을 사용하였는데, 광한루에서 이도령이 춘향을 바라보고 있고, 방자는 춘향을 부르러 뛰어가는 모습이다(<그림 27> 참조). 朴永運은 序文에서 ‘春香傳의 烈節은 原意가 實노 貴重하다’고 말하며, 『춘향전』에 나타난 윤리적 정신과 정직한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 倫理小說이라는 冠飾을 사용한 이유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1918년 博文書館에서 金用濟이 재판본을 발행하였다.

1913년 11월 光東書局 발행 『약산동덕』(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著作兼發行者가 李鍾楨이다. 李鍾楨은 서두에서 色에 대한 탐닉과 징계를 위해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28> 참조). 이야기의 배경이 평안북도 영변군 약산이고 남자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과 탁월한 재주를 지닌 영웅적 인물이며, 애정 장면이 대폭 축소된 점 등이 특징이다. 1921년 博文書館에서 4권이 발행되었다.



<그림 2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3년 발행 「倫理小說廣寒樓」 표지



<그림 2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3년 발행 「약산동덕」 1면

1913년 12월 新文館 발행 『고본 춘향전』(울곡기념도서관 소장)은 編修兼發行人이 崔昌善이다(<그림 29> 참조). 실제 개작자는 崔昌善의 동생인 六堂 崔南善으로, 서문에 나온 ‘南岳主人’은 당시 崔南善이 주로 사용하던 筆名이다. 당시 육당의 나이가 18세로 어렸기 때문에 伯兄인 최창선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다.⁶⁷⁾ 序文

에서는 이 세상에 믿음과 끝음이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 내용은 한반도의 名勝古跡을 다니는 路程記 형식으로 시작하며, 음란한 내용들을 삭제하여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이야기를 부각시켰다. 崔南善은 1914년 발행한 『신문관발행서적총목록』에서 『고본 춘향전』을 ‘춘향전의 唯一定本’이라고 강조하면서, 名唱의 사설을 그대로 적은 珍本에 교정을 가했다고 밝혔다. 제목에 ‘古本’이라는 冠飾을 붙인 것도 이해조의 『옥중화』나 아류작 같은 개작본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남선이 말한 珍本은 貫冊 계통의 『춘향전』(東洋文庫 소장)으로 보인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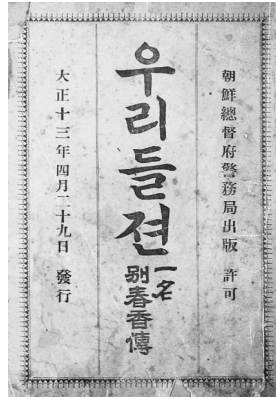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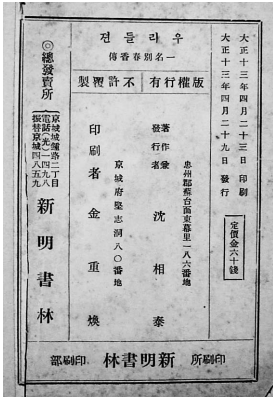
<그림 29>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1913년 발행 「고본 춘향전」 版權紙(좌), 1면(우)

1925년 4월 新明書林 발행 『우리덜전 권상』(영남대 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沈相泰이고 表題는 『우리들전一名別春香傳』이다(<그림 30> 참조). 다른 活字本의 發行者 주소지가 대체로 京城인 것과 달리 沈相泰의 주소지는 ‘忠州郡 蘇台面’이다. 본문은 두 사람의 재담가가 춘향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희곡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序文에는 看讀方法이 나와 있고, 본문은

67) 이주영, “新文館 刊行 <六錢小說>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8집(1996. 6), 425.

68) 설성경(1986), 140.

大字로 된 원문과 小子로 된 ‘昭昭의 評과 舍舍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상권은 5책이 전해지고 있지만 하권 출판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림 30> 영남대 도서관 소장 1925년 발행 「우리들전 권상」 版權紙(좌), 1면(우)

1927년 滙東書館·弘文堂에서 공동 발행한 『오작교』(영남대 도서관 소장)는 著作兼發行者가 高裕相이고 表題는 「奇緣小説烏鵲橋오작교」이다. 춘향과 이몽룡의 인연을 견우와 직녀에 빗대어 제목을 지었으며, 개작의 폭이 심하고 인물간의 재담이 없어서 사실이 매우 짐작게 바뀌었다.

지금까지 新鉛活字本 『춘향전』 한글본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新鉛活字本 『춘향전』 한글본

구분	內題	卷數	發行所	發行年	편집배열방식	기타
육중화 계통	신여별춘향가	1책	京城 唯一書館	1913	앞표지-절차-본문-광고지-版權紙-뒷표지	平裝 국판
	선한문춘향전 (鮮漢文春香傳)	1책	京城 東美書市	1913	앞표지-삽화-본문(삽화)-版權紙-뒷표지	平裝 신국판
	증상연예 육중가인	1책	京城 新舊書林	1914	앞표지-서문-본문-版權紙-뒷표지	平裝 국판
	獄中佳花	1책	京城 世昌書館	1916	앞표지-삽화-본문-광고지-版權紙-광고지-뒷표지	平裝 신국판

『춘향전』刊行本の系統 및 書誌의 特徵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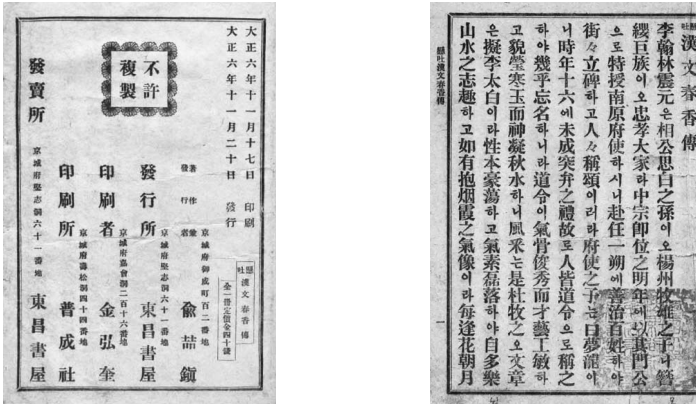
구분	內題	卷數	發行所	發行年	편집배열방식	기타
유중화 계통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	1책	京城 漢城書館·唯一書館	1917	앞표지-삽화-본문-광고-版權紙(광고지)-뒷표지	平裝 국판
	新獄中佳人	1책	京城 大昌書院·普及書館	1918	앞표지-서문-본문-版權紙-뒷표지	平裝 신국판
	(演演訂정春춘香 향傳전)	1책	京城 漢城書館	1917	앞표지-절차-본문-광고지-版權紙-뒷표지	平裝 신국판
	절디가인 춘향전	1책	京城 大昌書院·普及書館.	1920	표지-본문-광고지-版權紙-뒷표지	平裝 국판
	증수춘향전	1책	京城 匯東書館	1923	표지-본문-광고지-版權紙-뒷표지	平裝 신국판
	만고려녀 춘향전	1책	京城 永昌書館·韓興書林	1924	앞표지-삽화-본문-광고-版權紙(광고지)-뒷표지	平裝 국판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	1책	京城 永昌書館·韓興書林	1924	앞표지-삽화-본문-版權紙(광고지)	平裝 국판
	고디소설 언문춘향전	1책	京城 匯東書館	1925	표지-본문-광고지-版權紙-뒷표지	平裝 4·6판형
	懷中 春香傳 춘향전	1책	京城 廣漢書林	1927 재판	앞표지-본문-광고지-版權紙-뒷표지	平裝 국판
	萬古烈女特別無 雙 春香傳	1책	京城 永昌書館·韓興書林 외	1934	앞표지-삽화-본문-광고지-版權紙-광고지-뒷표지	平裝 4·6판
非 유중화 계통	倫理小説 廣寒樓	1책	京城 東洋書院	1913	앞표지-서문-본문-版權紙-뒷표지	平裝 국판
	약산동티	1책	京城 光東書局	1913	앞표지-본문-版權紙-뒷표지	平裝 국판
	고본 춘향전	1책	京城 新文館	1913	앞표지-내지-서문-본문-版權紙-광고지-뒷표지	東裝 국판
	우리덜전 권상	1책	忠州 新明書林	1925	앞표지-서문-본문-版權紙-뒷표지	平裝 4·6판
	오작교	1책	京城 匯東書館	1927	앞표지-서문-본문-版權紙-뒷표지	平裝 4·6판

4.1.3 漢文本

4.1.3.1 小説本 계통

1917년 11월 東昌書屋 발행 『懸吐漢文春香傳』(울곡기념도서관 소장)은 著作兼發行者가 俞喆鎭이다. 寫本 『春香新說』을 개작하면서 국문타를 달았으며 사

랑가와 농부가 같은 비속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1923년 12월 발행 재판본(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활자 크기가 초판본에 비해 작아졌다(<그림 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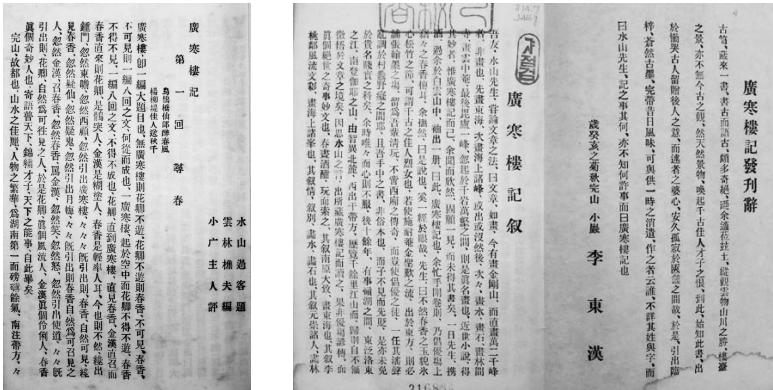
<그림 31> 을곡기념도서관 소장 1917년 발행 초판 「懸吐漢文春香傳」版權紙(좌), 1면(우)

4.1.3.2 演戲本 계통

1918년 8월 古今書海 발행 『原本春香傳(廣寒樓記)』(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은 普成社編輯部에서 編纂한 것으로 表題가 『漢文原本春香傳』이다. 內題에는 (廣寒樓記)라는 부제가 있고 본문은 8회로 구성된 回章體 형식이다. 목차와 小題가 『廣寒樓記』와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1924년 4월 비매품으로 발행된 『廣寒樓記』(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는 編者가 南原郡廳庶務課이다(<그림 32> 참조).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寫本 『廣寒樓記』와 동일하다. 『讀廣寒樓記四法』에서는 ‘看月讀, 看花讀, 彈琴讀, 飲酒讀’을 해야 작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문은 총 8회로 구성된 回章體 형식이고, 각 回의 첫 머리와 끝에는 作家의 評文이 덧붙여져 있다. 삽입가요인 千字풀이, 十杖歌, 농부거나 해학적 표현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廣寒樓記敍 및 後敍에는 水山으로부터 입수한 경위를 밝히고 『西廂記』와의 비교를 통해 작

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1927년 7월 발행 重刊本(영남대 도서관 소장)에는 일본어번역본(52면)과 ‘烏鵲橋, 廣寒樓, 五柳亭, 舊獄■■■’의 사진이 실려 있다.



<그림 32>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1924년 發行 「廣寒樓記」 1면(좌), 序文(우)

1929년 9월 文化書林 발행 「春夢緣(漢詩春香歌)」(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는 著作兼發行者가 李能和이고 內題에는 ‘李能和 無無居士 著’라고 되어 있다. 본문은 7회로 구성된 回章體 형식이고, 원각사 공연의 각본으로 추정되는 漢文演本 「춘향전」(울곡기념도서관 소장)을 改作한 것이다.⁶⁹⁾ 특히 ‘漢詩春香歌’라는 부제답게 漢詩가 주를 이룬다. 李能和는 序文에서 ‘한글본은 비속하고 漢文本은 문자가 어렵기 때문에 통속에 적합하도록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다. 제목을 春夢緣이라 한 이유는 춘향과 몽룡의 인연이 一場春夢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⁷⁰⁾

지금까지 新鉛活字本 『춘향전』 漢文本의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표 10>과 같다.

69) 김중철, “漢文本 『春香傳』 연구,” 『인문논총』 제6집(1995. 6), 132. 서문에서 ‘圓覺社春香歌劇脚本春香傳’이라 밝히고 있다.

70) 『춘향전』의 근원설화와 발생(春香歌之本劇), 기생의 기원과 종류(妓生之起源及沿革), 광대의 기원과 유명한 광대(廣大之俳優業), 조선 연극의 유래(朝鮮演劇(山臺劇)之由來), 창극 춘향전 상연(春香歌之演劇)에 대해 역사적 자료를 들며 설명하였다.

<표 10> 新鉛活字本 『춘향전』 漢文本

구분	內題	卷數	著者	發行所	發行年	편집배열방식	기타
小說本 계통	懸吐漢文春香傳	1책	俞喆鎮	京城 東昌書屋	1917	앞표지-내지-본문-版權 紙-뒷표지	東裝 신국관
演戲本 계통	原本春香傳 (廣寒樓記)	1책	普成社 編輯部	京城 古今書海	1918	앞표지-내지-서문-목차- 본문-版權紙-뒷표지	東裝 국관
	廣寒樓記	1책		南原郡廳 庶務課	1924	발간사-서문-본문-부록- 詩抄-版權紙-誤正表	東裝 국관
	春夢緣 (漢詩春香歌)	1책	李能和	京城 文化書林	1929	앞표지-광고지-總引-목 차-본문-版權紙-뒷표지	東裝 국관

4.2 石版本

石版本 『춘향전』은 1종 3책이 전해지고 있다. 1915년 演戲本 형식으로 지어진 呂圭亨의 『춘향전』(울곡기념도서관 소장)은 표제가 『帶方花史』이고 앞뒤에 出帳演談이 붙어 있다. 앞에서는 작품의 배경과 저작 의도 소개, 뒤에서는 圓覺禮에서 공연되는 춘향전에 대한 자랑과 후일담이 나온다. 본문은 12회로 구성된 回章體 형식이고, 七言이나 五言의 漢詩로 된 唱은 극적 상황에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하였다. 祭文, 祝願文, 書簡文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작자의 문학적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⁷¹⁾

4.3 活字本の 書誌的 性格

4.3.1 字體

活字本 『춘향전』 29종 82책의 字體를 분석한 결과 한성체 27종, 최지혁체 1종, 해서체 1종으로 나타났다.⁷²⁾

71) 鄭夏英, “漢文演本 春香傳考,” 『한국언어문학』 제23집(1984. 12), 509-530.

72) 김진평,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 『출판연구』 창간호(1990. 3), 314-320. 高宗 20년(1883)에 근대식 인쇄소인 박문국이 신설된 후 일본의 쓰꾸지 활판소 제작의 수동식

첫째, 한성체로 된 27종의 활자는 획이 굵고 투박한 느낌도 들지만 비교적 상하좌우가 균형적이고 수평적이어서 안정감을 주는 형태이다(<표 11> 참조). 본문에는 4호 활자(13.75pt=4.832mm)를 사용하였고, 쪽수와 面註에는 5호 활자(10.5pt=3.690)가 사용되었다. 1927년 발행된 문고본 『懷中 春香傳 춘향전』(영남대 도서관 소장) 본문에는 5호 활자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둘째, 최지혁체를 사용한 1종은 1917년 발행 『懸吐漢文春香傳』으로서, 한글과 한자 모두 1호 활자를 사용하였다. 글자 형태가 세로로 좁아지면서 급격히 날카로워지고 자음은 약간 기울어져 있다(<표 12> 참조).

<표 11> 1913년 발행 「訂正四刊 獄中花(春香歌演訂)」에 쓰인 한성체

王	絶	李	急	時
난	하	삼	이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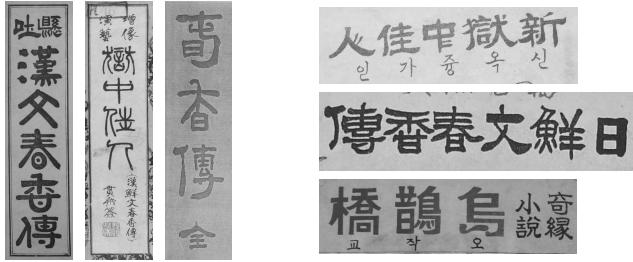
<표 12> 1917년 발행 「懸吐漢文春香傳」 초판에 쓰인 최지혁체

立	特	孝	南	百
이	니	로	라	하

셋째, 해서체를 사용한 1종은 한문으로 된 石版本 『春香傳』이다.

넷째, 表題에 손글씨체(장식체)를 사용한 것은 9종이며, 주로 한문으로 된 書名에서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활판 기계와 명조체 한자 활자가 수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자 4호 활자와 한글 4호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1886년 國漢文混用 <漢城周報>가 발간되었다. 이 ‘한성주보 새활자체’를 흔히 한성체라고 부른다. 최지혁체는 高宗 17년(1880) 崔智麟의 글자를 子本으로 만든 활자체이다. 프랑스인 주교 리델(Ridel)이 일본에서 『한불사전』을 간행할 때 처음 사용되었다. 이 활자체는 최초 5호 활자였으나 점차 다듬어진 3호와 2호 활자체가 쓰꾸지 활판제조소에서 주조되었으며, 高宗 23년(1886)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되었다.



<그림 33> 손글씨체(장식체)로 된 表題

4.3.2 發行所 및 發行者

첫째, 活字本 『춘향전』의 發行所는 모두 2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京城(서울) 20개소, 충주 1개소, 남원 1개소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活字本 『춘향전』의 發行所

지역	발행소	발행 종수
京城 (서울)	永昌書館	4종
	普及書館, 匯東書館, 韓興書林	3종
	世昌書館, 唯一書館, 漢城書館, 大昌書院, 振興書館	2종
	朝鮮書館, 東美書市, 新舊書林, 廣漢書林, 東洋書院, 光東書局, 新文館, 東昌書屋, 古今書海, 文化書林, 德興書林	1종
忠州	新明書林	1종
南原	南原郡廳 庶務課	1종

가장 많은 종수를 발행한 永昌書館은 1914년에 강의영이 자신이 社主로 있던 世昌書館을 왕세창에게 인계하고 새로 설립한 것이다. 永昌書館은 1920~1960까지 40년 동안 新舊소설류와 창가서 등 720종을 발행한 출판사 겸 서점이다. 匯東書館은 1880년대 말부터 1940년대까지 활동했던 출판사 겸 서점으로, 社主인 고재홍이 1880년대 말 대광고 근처에 高濟弘書肆를 열어 1904년경에 설립한 것이다. 총 408종의 서적을 발행하였으며, 그 중에는 문학이 193종으로 가장 많았

다. 滙東書館의 대구 지점은 1926년 滙東書館이 分賣所였던 동보당서관을 인수하여 세운 것이다. 新文館은 육당 최남선이 1907년 서울에 설립하여 1922년까지 운영한 출판사이다. 일본에서 신식 活版印刷術을 도입하여 근대적 인쇄기술을 선보인 곳으로, 잡지나 소설, 어학, 역사 등 63종을 발행하였다. 十錢叢書, 六錢小說文庫 등의 보급판을 발행하고, 우편 제도를 통한 통신 판매도 활성화시켰다. 新舊書林은 池松旭이 운영하던 것으로, 1900~1940년대까지 坊刻本을 비롯한 463종의 책을 발행하였다.⁷³⁾

둘째, 發行者는 모두 19명인데 개작의식이 뚜렷한 최남선과 이혜조, 이능화를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社主이거나 개작에 관여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永昌書館 社主인 강의영은 가장 많은 新鉛活字本 3종을 발행하였다.

4.3.3 채색 표지

新鉛活字本 『춘향전』 25종에서 채색 표지가 사용되었는데, 대체로 전통 민화나 풍속화처럼 간단명료하면서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이를 다시 표지 내용에 따라 분류해보면 5가지 양식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꽃과 나무를 배경으로 하여 춘향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모두 11종이 있다. 1913년 발행 『선한문춘향전(鮮漢文春香傳)』에서는 타원 안에 대나무 잎과 춘향의 모습을 그려 넣었고, 주변에는 매화와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 1917년 발행 『萬古烈女 日鮮文春香傳』에서는 타원 안에 춘향의 모습을 그려 넣고, 그 주위에는 리본에 묶인 대나무와 매화가 그려져 있다. 대나무는 이몽룡의 지조를, 매화는 춘향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설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으로 모두 5종이 있다. 1927년 발행 『오작교』에는 이도령과 방자가 오작교를 건너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廣韓書林 발행 『懷中春香傳춘향전』에는 광한루에서 방자가 춘향을 부르러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셋째, 광한루를 배경으로 하여 이도령과 춘향의 다정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

73)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48-58.

모두 3종이 있다. 1920년 발행 「절디가인 춘향전」에는 원근법을 적용하여 강 건너 가옥과 나무는 작고 단순하게, 춘향과 이몽룡은 크고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1934년 발행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 표지에는 춘향이 이도령에게 안긴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점차 연애 풍속이 자유로워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넷째, 인물 없이 꽃과 나무, 나비가 나오는 百蝶圖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 것으로 모두 3종이 있다. 1914년 新舊書林 발행 「증상연애 옥중가인」에는 춘향을 상징하는 모란꽃에 나비가 날아드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다섯째, 나비와 꽃, 춘향과 이도령의 다정한 모습, 소설의 내용이 혼합된 것으로 모두 3종이 있다. 1924년 발행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의 표지에는 광한루에서 방자가 춘향을 부르러 간 모습이 그려져 있고 주변에는 꽃과 나비를 배치하였다.

4.3.4 삽화

新鉛活字本 『춘향전』에서 삽화가 사용된 9종은 모두 「옥중화」 계통으로, 國漢文混用本 3종과 한글본 6종이다. 이 중에서 동일한 삽화가 사용된 2종⁷⁴⁾을 제외하고, 나머지 7종의 삽화를 이야기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新鉛活字本 『춘향전』의 삽화

삽화 내용	판본 訂正四刊 獄中花 (1913)	선한문 춘향년 (1913)	증상연애 옥중가인 (1914)	특별무쌍 춘향년 (1920)	訂正九刊 獄中花 (1921)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 (1924)	萬古烈女 特別無雙 春香傳 (1934)	계
이도령과 춘향의 모습				○	○	○		3
이부사와 방자의 모습			○	○				2
춘향모와 향단의 모습			○	○				2
이도령의 모습		○						1
춘향의 모습		○	○					2
선녀꿈 꾸는 춘향모							○	1
그네뛰는 춘향							○	1
춘향을 부르러 간 방자		○			○	○	○	4

74) 1917년 발행 「(演)訂正春香傳」과 1924년 발행 「만고려녀 춘향전」은 각각 1915년 발행 「특별무쌍춘향년」 및 1924년 발행 「옥중 절디가인 춘향전」과 동일한 삽화이다.

『춘향전』 刊行本の 系統 및 書誌의 特徵에 관한 研究

삽화 내용	판본 訂正四刊 獄中花 (1913)	선한문 춘향년 (1913)	증상연예 옥중가인 (1914)	특별무쌍 춘향년 (1920)	訂正九刊 獄中花 (1921)	옥중 결타가인 춘향전 (1924)	萬古烈女 特別無雙 春香傳 (1934)	계
춘향이 보고 싶은 이도령							○	1
춘향집에 가는 이도령과 방자					○	○	○	3
이도령을 맞는 춘향모							○	1
술잔을 나누는 춘향. 이도령							○	1
오리정 이별	○	○			○	○		4
선녀와 만나는 춘향							○	1
신관사또 도입			○	○	○	○		4
신관의 기생점고		○	○	○				3
춘향의 미모에 감탄하는 신관							○	1
춘향을 형장치는 부사	○				○	○		3
기도하는 춘향모		○						1
옥중에서 혈서 쓰는 춘향							○	1
춘향의 편지를 읽는 어사						○	○	2
농부들과 만난 이어서			○	○	○		○	4
춘향과 해몽하는 봉사			○	○	○	○		4
춘향과 이도령의 옥중 재회	○				○	○	○	4
신관 생일잔치(어사 축출)					○		○	2
어사출도			○	○		○		3
술을 마시는 이도령과 춘향모							○	1
춘향을 안고 위로하는 이도령					○			1
떠나는 이도령. 눈물 흘리는 춘향							○	1
엉덩이춤 추는 춘향모		○	○	○		○		4

첫째, 전체적으로 총 30대목에서 삽화가 사용되었으며 판본별로는 1952년 世
昌書館 발행 『만고렐녀 도상옥중화』가 39장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1934
년 발행 『萬古烈女特別無雙 春香傳』에 18장이 수록되었다.

둘째, ‘이도령이 보내 춘향을 부르러 간 방자’, ‘오리정 이별’, ‘신관사또 도입’,
‘어사와 농부들의 대화’, ‘춘향의 꿈을 해몽하는 봉사’, ‘춘향과 이도령의 옥중 재
회’, ‘엉덩이춤 추는 춘향모’ 그림은 新鉛活字本 4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셋째, ‘이도령과 춘향의 다정한 모습’, ‘춘향집을 가는 이도령과 방자’, ‘춘향을
형장치는 부사’, ‘신관의 기생점고’, ‘어사출도’ 그림은 모두 3종의 新鉛活字本에
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5. 結論

본 논문에서는 『춘향전』의 형성과 발달 과정, 寫本과 刊行本の 系統 및 書誌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하는 『춘향전』 寫本과 刊行本은 총 143종 286책으로 확인되었다. 이중에서 筆寫記·刊記·藏書記가 확인된 90종 183책 즉, 寫本 42종 54책, 木板本 19종 47책, 活字本 29종 82책의 형태·표기문자·시기별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춘향전』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5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제4기 1910~1920년대가 『춘향전』의 제작과 유통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木板本과 活字本의 형태·표기문자·내용에 따라 계통을 수립하고 각각의 書誌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木板本 『춘향전』은 刊行 지역에 따라 京板本 7종 17책, 完板本 9종 26책, 安城板本 3종 4책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 장수에 따라 나뉘보면, 京板 『춘향전』은 30장본 계통 3종 3책, 23장본 1종 2책, 17장본 1종 1책, 16장본 계통 2종 11책이고, 完板 『춘향전』은 26장본 1종 1책, 29장본 계통 2종 5책, 33장본 1종 3책, 84장본 계통 5종 17책이다. 安城板은 모두 20장본으로 3종 4책이다. 字體는 京板의 경우 흘림체 2종, 반흘림체 5종이고, 完板은 반흘림체 3종, 정자체 6종, 安城板은 흘림체 3종으로 나타났다. 京板의 字體는 3가지 유형으로 변화하였는데, 기존 연구와 달리 흘림체나 반흘림체에서 정자체로 변화한 경우도 있었다. 完板 『춘향전』의 字體는 대체로 흘림체에서 정자체로 변해갔으며, 安城板 『춘향전』은 字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刊行地(刊行者)를 분석한 결과 京板은 2곳, 完板은 5곳, 安城板은 3곳이 확인되었다.

活字本 『춘향전』은 형태에 따라 新鉛活字本 28종 79책, 石版本 1종 3책으로 나타났다. 新鉛活字本은 다시 표기 문자에 따라 國漢文混用本 4종 11책, 한글본 19종 37책, 漢文本 5종 31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에서 國漢文混用本은 모두 이해조의 「옥중화」 계통에 속한다. 한글본은 「옥중화」 계통 14종 28책, 非「옥중화」 계통 5종 9책으로 나뉘고, 漢文本은 형식에 따라 소설본 계통 1종 5책, 演戲本

계통 3종 6책으로 나타났다. 漢文本은 모두 非『옥중화』 계통에 속하며, 石版本 1종은 演戲本 형식의 漢文本이다. 字體는 한성체가 27종, 최지혁체가 1종, 해서체가 1종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형태의 손글씨체(장식체)로 된 表題도 9종이 있었다. 發行所는 총 22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로는 京城(서울) 20개소, 충주 1개소, 남원 1개소으로 나타났다. 發行者는 모두 19명이고, 이중에 16명은 출판사의 사주이거나 개작에 관여한 인물이다. 채색 표지는 25종에서 사용되었으며 이것을 다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대체로 민화나 풍속화처럼 간단명료하면서도 화려한 색채가 주류를 이뤘다. 삽화는 9종 30대목에서 사용되었다.

<참고 문헌>

[영인 자료]

- 경문사 편집부. 『春香傳』. 서울: 경문사, 1977.
- 金東旭.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5』. 서울: 羅孫書屋, 1975.
- 金東旭, 權寧徹, 金泰俊. 『春香傳寫本選集 1』. 서울: 明知大學出版部, 1977.
- 김동욱, 김태준. 『影印解說古小說選』. 서울: 개문사, 1977.
- 서울대학교 규장각. 『朝鮮後期 地方地圖: 京畿道編』. 부산: 民族文化, 2005.
- 서울대학교 규장각. 『朝鮮後期 地方地圖: 全羅道編』. 부산: 民族文化, 2005.
- 설성경. 『춘향전 1』. 서울: 고려서림, 1987.

[단행본 및 논문]

-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03.
- 김삼기. “朝鮮後期 製紙手工業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 김석배. “晚華本『春香歌』.” 『판소리 研究』 제3집(1996. 6). 327-350.
- 김석배. “춘향전 이본의 생성과 변모 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2.

- 김종철. “漢文本 春香傳 연구.” 『인문논총』 제6집(1995. 6). 132-155.
- 김진평.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 『한글조형연구』. 서울: 한국출판문화연
구소, 1990. 88-141.
- 류준경. “『익부전』의 서사적 특징과 그 의미.” 『한국문화』 제31집(2003. 6), 77-107.
- 류준경. “漢文本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
교 대학원. 2003.
- 류탁일. “完板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0.
- 류탁일. 『韓國文獻學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
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 설성경. 『춘향전의 형성과 계통』. 서울: 정음사, 1986.
- 설성경. 『한국고전소설의 본질』. 서울: 국학자료원, 1991.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고서해제 X』. 서울: 평민사, 2008.
- 이창헌. 『京板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 태학사, 2000.
- 이주영. 『舊活字本 古典小說 研究』. 서울: 월인, 1998.
- 이주영. “新文館 간행 <六錢小說>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5집(1996. 6), 412-455.
- 전상욱. “坊刻本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 정용완. 『積財울의 발자취』. 안성: 자비출판, 2000.
- 정하영. “漢文演本 春香傳考.” 『한국언어문학』 제23집(1983. 10), 509-530.
-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7.
- 최혜진. “도상옥중화(圖像獄中花) 연구.” 『관소리연구』 제7집(2000. 7). 224-268.
- 許鎬九, 姜在哲. 『(譯注)春香新說·懸吐漢文春香傳』. 서울: 以會文化社, 1998.